

근원적 독서교육을 바란다

김문환

서울대 미학과 교수

한국이 비록 분단된 상태에어나마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크게 경하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물로서 우리의 고유글자인 한글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취지로 「월인천강지곡」의 인쇄동판을 유엔본부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조금이라도 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뻐함직하다.

중국 송나라 인종 때 사람인 畢昇이 진흙을 굳혀서 글자를 파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일종의 자기 활자를 만든 것이 활자의 시초라고 하지만 활자라면 금속활자요, 금속활자라고 하면 의례히 15세기 중엽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활자의 모형과 황동계의 주형을 발명하여 연·주석의 합금을 써서 활자를 마음대로 주조하는 데 성공하여 마인츠에서 활판인쇄를 시작한 것을 손꼽는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 역시 그렇게 연상하도록 교육을 받았기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 무엇이나고 물어오면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유럽보다 오백년이나 앞선 고려 고종 때 「직지심경」으로서 당시에는 이미 일반도서도 금속활자로 많이 간행되었다고 추측된다. 이규보의 시문집 「상야예문」 그 이 증거이다.

그로부터 어언 7세기가 지나간 오늘날 우리는 월 평균 1만5백종의 책이 출판되어 유네스코의 통계에 따르자면 세계에서 10위권내에 드는 출판대국이다. 그런데도 웬지 허전한 느낌이 든다. 왜일까?

우선 그 많은 책들 중 상당부분이 학습참고서류라는 데 있다. 물론 학교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요, 따라서 이를 위한 보조자료들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지나치게 대학입시 위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해보기 위해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이라면 의례히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시험을 연상하고 지긋지긋해 한다.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져나올 사회를 살아가야 할 세대들에게 제한된 지식을 반복해서 암기하도록 하는 주입식 교육이 갖는 폐해가 정말 언제까지나 계속 되려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흔히 사람들은 양서의 출판이 부진하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퇴폐풍조를 조장하는 악서들에 탐닉하는 독자들의 낮은 안목을 한탄하곤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어 그것을 통해 일생생활이 보다 안락해지고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보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초교양을 마련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독자들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원고 생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서 내지 사고의 재생산에 이르는 그토록 긴 과정의 모든 부분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독서교육이 진흥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에야 예컨대 이동도서관운동도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한때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니 '등화가친'의 계절이니 하는 말이 상식처럼 되었지만, 이즈음은 오히려 여름에 책이 더 잘 팔린다고 한다. 잘 된 일이다. 전천후독서라고나 할까? 책이란 마치 공기처럼 늘상 사람다운 삶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야 정말 떳떳하게 우리나라가 책의 나라임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뉴스	2	학습참고서 가격심사제 추진·외
표지	4	자유주의 한 세기 역사의 내면적 승화 「자유주의의 역사와 원리」 펄낸 노명식교수
시론	6	사회민주주의, 또하나의 대안인가 - 신광영 본격연구서 선보이며 공개적 논의로 관심 끌어
초점	8	한국농업 현안문제 다룬 책 는다 - 이권우 '우르콰이태풍' 앞둔 위기의식 반영해 출판 활기
소식	9	이달의 문화인물에 한의학자 허준
서평	10	김대행 「시가시학연구」- 권오만 문성학 「인식과 존재」- 김혜숙
	11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정정호
		박호성 「수령의 정치 수레바퀴의 정치학」- 김진균
	12	김명자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이필렬
		박양호 「슬픈 세대의 사회」- 정한용
	13	박용수 「유언의 땅」- 김만수
		조정권 「산정모지」- 김정란
출판화제	14	춘철살인의 '시시칼럼집' 인기 끈다
	15	미래사회 비전 제시하는 '과학소설'
	16	서점가 휩쓰는 '영화소설' 이상열기
화제의 인물	18	자신의 작품 20년만에 재번역한 김은국씨
	19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사랑」 완간한 최수철씨
화제의 책	20	낭만과 정감 넘치는 글들네 뒷이야기 문단야사에서 요절문인 추모집까지
	21	軍과 核 문제 다룬 국내연구서 들 「한국군」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이 책 그사람	22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낸 황상익교수 「간판이야기」 펄낸 김영배씨
	23	「남한강」 펄낸 영화감독 장선우씨 「내 인생의 절반은...」낸 이세룡씨
교양논단	24	'낮선' 상황의 '열린' 사상가 그림시 - 배병삼 탄생백주년 맞은 그림시의 학문과 사상
해외출판	26	영역 확대하는 미시카고大 출판부·외 - 이희재
세계의 책	28	사랑으로 살아남은 나치 치하의 악몽·외
	30	독자서평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안내